‘코리아세일 페스타’ 자동차 최대 20% 할인

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차·한국지엠 행사
일부 차종 무이자 ·저금리 할부, 더블 캐시백 제공

자동차업계가 국내 최대 관광·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KSF)를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 업체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무이자 할부, 더블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3일 국내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KSF 기간 승용·RV·상용 등 9개 차종 1만6000대에 대해 3~10% 할인하고, 5개 상용차는 최대 20%를 깎아주는 연례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량별 할인율은 엑센트 7~10%(주력 트림 기준 최대 150만원), 벨로스터(N 제외) 10%(270만원), 아반떼 5~7%(133만원), 쏘나타 3~7%(189만원), 그랜저 10%(350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 6~8%(312만원), 코나 5~7%(168만원), 투싼 3%(84만원), 싼타페 3~5%(180만원) 등이다. 상용차는 마이티 5%, 메가트럭 4%, 쏠라티 1.5%, 뉴파워트럭 7%, 엑시언트 20% 수준에서 1200대를 할인한다.

저금리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벨로스터 1%, 아반떼·그랜저·그랜저 하이브리드 1.25%, 쏘나타 2.5% 등이다. 여기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혜택까지 적용하면 차종별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84만원까지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

기아자동차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기아차는 오는 29일까지 차량 가격을 최대 10% 할인해주고 무이자 할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 할인율은 모닝 4~7%, 레이 2~5%, K3 3~6%, K5 가솔린 7~10%, 스토닉 2~4%, 스포티지 3~7%, 쏘렌토 4~7%, 카니발 2~5%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력 트림 기준으로 카니발은 최대 180만원, 쏘렌토는 230만원, K5 가솔린은 26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인기차종에 대해 36개월 무이자 할부 및 더블 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 혜택은 개인·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레이, 스토닉은 무이자 할부에서 제외되고, 모닝, 레이, 스토닉은 더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경우 카니발은 약 200만원, 쏘렌토는 약 230만원, K5 가솔린은 약 240만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2020년형 SM6 GDe·TCe 구매 고객에게는 옵션·용품·보증연장 등 구입비(최대 250만원 상당)나 최대 200만원 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TCe 모델을 사면 여기에 200만원의 특별 할인과 재고 할인 80만원을 더해 최대 530만원의 혜택을 준다.

2020년형 SM6 LPe 모델의 경우 장애인용은 구입비 150만원 또는 현금 100만원 혜택을, 렌터카용은 구입비 50만원 또는 현금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개월 할부 구매 시 0.9%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부 원금과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쌍용차도 11월 한 달간 정상가의 최대 10% 할인, 0.9% 저리 할부 등을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한다.

전 모델을 대상으로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3.5%) 상당의 금액을 할인해주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 현금으로 90만원을 지급한다. 7년 이상 차량을 바꾸는 고객에게도 30만원 혜택을 준다.

렉스턴 스포츠&칸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3.9%(최장 72개월), 5.9%(최장 120개월) 이율을 적용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3.9% 할부로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2%를 더 할인해준다.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는 차종에 따라 0.9~5.9%(최장 36~120개월)의 비교적 저렴한 이율로 장기 할부 혜택을 준다.

매일 행사 차량 구매 고객 1명을 추첨해 1000만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지엠(GM)도 쉐보레 브랜드 차량에 대해 최대 15% 할인 또는 최대 7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차량은 5000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사전계약

일체형 전면부 디자인 첫 적용

현대자동차는 이달 출시하는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그랜저’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더 뉴 그랜저는 2.5가솔린, 3.3가솔린, 2.4하이브리드, 3.0LPi 등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된다.

2.5가솔린 모델은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 G2.5엔진을 신규 탑재하며, 기존 모델 대비 연비·동력성능·정숙성을 모두 개선했다. 3.3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29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응답성이 향상된 R-MDPS(랙 구동형 파워스티어링)을 탑재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개선된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에어로 휠을 장착하는 등 공력 성능을 높였으며, 3.0 LPi 모델은 LPi 탱크를 기존 실린더 형태 대신 원형으로 새롭게 적용해 적재 공간을 키웠다.

더 뉴 그랜저는 전장이 4990mm로 기존 모델대비 60mm 늘어났다. 휠베이스와 전폭도 각각 40mm, 10mm 확대됐다.

외장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전면부 디자인을 현대차 양산차로는 처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내장은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인을 통해 라운지와 같은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는 감성적인 그래픽을 구현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경계가 없는 심리스(Seamless) 형태로 자리해 시인성을 높였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엔진별로 ▲2.5 가솔린 3294만~4158만원 ▲3.3 가솔린 3578만~4399만원 ▲2.4 하이브리드 3669만~4539만원 범위 안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업계 첫 통합 모바일 앱 ‘기아빅’ 경품 이벤트

20일까지 1105명 선물

기아자동차는 통합 모바일 앱 ‘기아빅(KIA VIK)’의 출시 1주년을 맞아 1105명의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돌잡이’를 콘셉트로,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기아빅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앱 실행 후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친근한’, ‘새로운’, ‘재미있는’, ‘빠른’, ‘유용한’ 등 기아빅에 기대하는 모습을 담은 돌잡이 물품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곧바로 경품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아빅 공식 출시일인 11월5일을 상징하는 1105개의 경품이 준비돼 있다. 갤럭시 폴드, LG그램 15in 노트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빅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 통합 모바일 앱으로, 기아차의 영문 사명 ‘KIA’와 이를 거꾸로 뒤집은 형상의 ‘VIK’을 조합해 기존의 틀을 깨는 역발상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큰(BIG)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객들이 차량 구매 전 정보 탐색부터 구매 단계, 차량 유지 및 관리, 처분을 위한 중고차 시세 조회에 이르는 ‘카 라이프’ 전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의 아이디로 기아차 홈페이지·기아 레드멤버스 등 기아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차계부 작성, 정비 이력 및 소모품 관리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겨울용 타이어 20% 할인

마세라티가 내년 1월31일까지 광주 등 전국 9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겨울용 타이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철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은 구매 고객에게 윈터 타이어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 행사는 기블리와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면 더욱 신속하게 윈터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

할인은 피렐리 및 미쉐린 타이어에 한해 적용되며 행사 기간 동안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고객은 타이어 업체를 통해 사용하던 타이어를 1년간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사용되는 윈터 타이어는 노면 위의 이물질이 쉽게 달라붙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노면 접지력을 향상시킨다. 또 제동성능을 강화해 미끄러운 도로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3세대 K5’ 렌더링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가 오는 12월 출시를 앞둔 ‘3세대 K5’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패스트백 스타일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3세대 K5는 4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되는 모델로, 기아차는 “기존 K5의 디자인을 뛰어넘기 위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한 번만 봐도 뇌리에 박힐 수 있는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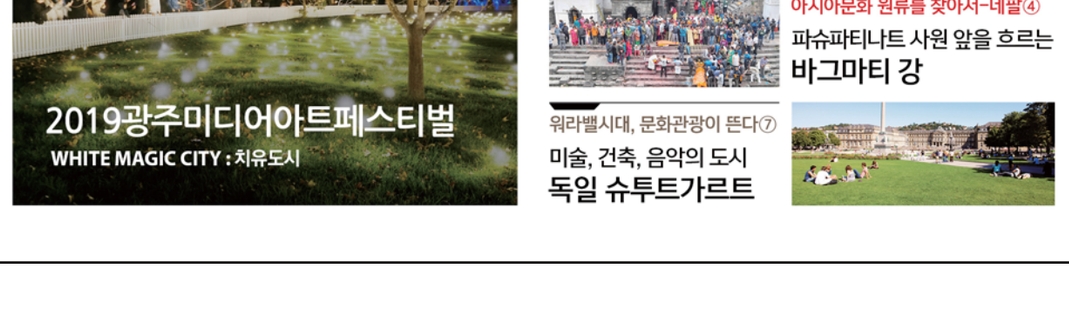
기아차는 개별적으로 분리됐던 기존 K5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등 전면부 배치 형식을 모두 허물고 그릴과 헤드램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타이거 노즈에서 진화한 ‘타이거 페이스’를 선보였다.

타이거 페이스는 기아차의 차세대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로, 앞으로 출시되는 기아차 신차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3세대 K5는 혁신을 넘어선 혁신으로 진화한 미래형 세단”이라며 “1세대 K5가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를 썼다면 3세대 K5는 세계시장에서 국산차의 뛰어난 디자인을 널리 알리는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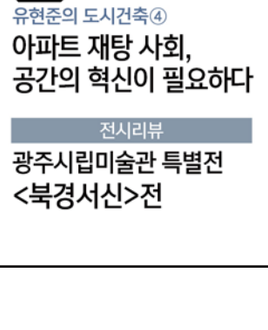

특집 ‘열광에서 동반으로’ 팬덤은 진화한다
– ‘덕질 영향력’이 문화판 바꾼다
– 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함께 성장

기획
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WHITE MAGIC CITY : 치유도시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完
다문화에 열린 시스템
멜버른 빅토리아주립도서관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④
파슈파티나트 사원 앞을 흐르는
바그마티 강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⑦
미술, 건축, 음악의 도시
독일 슈투트가르트


예향 초대석
등단 50년, 깊어진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은 세상에 위로 건네는 사람”

인물 화제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과 발자취
최원순·현덕신

클릭, 문화현장①–여수 예울마루
100년 예술산책 ‘한국근현대미술걸작전’

기획–올 가을, 그 섬에 가고 싶다
지붕없는 미술관, 연홍도를 가다

강제윤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⑩
바다의 숨결 스민 해산물 밥상
여수 손죽도 ‘따개비무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SCENE1980’ 창간한 김지연, 한재섭
데뷔 55년, 나이 잊은 ‘영원한 오빠’ 남진
KIA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④
파울 클레는 ‘리듬’을 그리고 싶었다

문화 읽기
공공예술 ‘아트 펀드레이징’ 걸음마

유현준의 도시건축④
아파트 재탕 사회,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신안
천사섬 매력 탐험 신안 섬여행
– 천사대교 달리자
– 으뜸 천일염과 홍어

전시리뷰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 <북경서신>전